첨산 거점 전북, K-카본 플래그십 개발 착수

신서해안 시대 여는 경제 전진기지, 탄소소재 역량 강화…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개발에 490억 투입

정부가 전북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소재산업 역량을 키우고, 수소차 기술개발·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K-카본(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5대 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개발을 뒷받침한다. 해당 사업에는 전북에 위치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도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한다.

전북은 현대차·타타대우·KGMC 등 다수의 기업들이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전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소차의 시장성 확보와 세계 수소상용차 시장 선점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액화수소저장용기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수소상용차용 대용량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에 49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완주에 오는 2026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와 같은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세운다.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힘을 싣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북에 탄소소재·부품의 생산지원과 성능분석 등 테스트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전북은 탄소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지로서 첨단산업 핵심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며 "발표한 내용이 잘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특히 전북 지역이 세계 시장의 중심지로 성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18일 오후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화학안전의 장(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청, 화학안전의 장 개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 역량 강화 위한 자리 마련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8일 오후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화학안전의 장(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학안전공동체는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활동하는 협력체로, 안전관리 기반을 갖춘 주관사(1개사)와 참여사(3개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최초 7개 공동체, 28개 사업장으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 산업단지에 총 16개 공동체, 64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관리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세부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설관리 사례 등의 화학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체 기업 간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설관리 사례에서는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정읍그룹의 주관사인 ㈜SK넥실리스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노하우, 안전활동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여 관련 우수사례들이 공동체 기업에 확산·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옥기기자

전북중기청,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확약식' 개최

선배 벤처기업들이 후배 벤처기업 성장 지원… 11억원 규모 결성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18일 남원청년마루에서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북리딩비즈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확약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투자 확약식을 가진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는 전북의 선배 벤처기업들이 후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총 11억원(GP 전북창조경제센터 1.1억원, LP 개인투자자 9.9억원)의 규모로 결성됐다.

특히, 작년 6월 지방청 주도로 지역기업 중심의 프랜드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된 전북리딩비즈클럽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호 조합 결성이 이루어진 점이 고무적이다.

전북리딩비즈클럽은 형우생(효진산업 대표) 회장 등 25명의 전북소재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클럽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책자문, 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2억원 규모의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1호가 전북 유망 스타트업 2곳(키베이직, 봉선장)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면서, 올해 더욱 확장된 재원과 더 다양한 LP를 구성원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2호 조합은 전북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배기업들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후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전북리딩비즈클럽 등 선배 기업 주도로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내 유망 기업에 성장자원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외에도 우리청은 스타트업 IR의 단계별 육성체계 마련 및 지역 주요 GP·엔젤투자협회·VC협회 등과 협업하여 투자자 발굴 및 투자 확산 교육을 통해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남원청년마루에서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북리딩비즈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확약식'을 개최했다.

전북리딩비즈클럽 형우생 회장은 "우리 클럽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자 씨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선배 기업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후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일본과 중소기업 '셔틀교류'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회장 모리 히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이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ICT 융합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셔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 또한 "韓日 양국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정부, 새만금에 해양 무인장비 시험장 구축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해양 무인장비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 지원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인 모빌리티가 확대되면서 해양에서도 첨단 모빌리티와 무인 이동체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관측, 국방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 관련 장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체계와 테스트베드,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양무인 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 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 중이다.

5년간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해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부터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 표준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성능평가 대신 공인 시험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 성능 검증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시험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화 실적을 축적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